



대형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
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
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
십시오 조계종 한양대선원의 대형
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살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자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어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법공양 페이지

전체가 한도량인데 어디가서 또 찾나

15면에서 계속

저 있습니다. 항상 말했지만 공력이나 전
력·지력·통신력이 갖추어져 있다고요.
우리가 물질세계만을 추구하며 산다면
물질세계의 노예가 되며, 그것은 끝없는
길을 고통스럽게 걸어야만 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 있으면서
죽지 않는다면 참다운 열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살아서 이 도리를 알고 죽어야
열반이지, 살아서 이 도리를 모르고 육신
이 죽은 것은 그냥 그대로 고통 속에서
죽는다 산다 없이 끝없는 길을 괴롭게
걸어야 할 것입니다.

남
과 것을 즐기고 싶다는 생각이
난다고 남이야 어찌된단 상관없
이 생각 일어나는 대로 움직이게
되는데, 안의 의식들은 나쁘고 좋고를 모
르고 자기가 생각내는 대로 그냥 따라올
니다. 그럴 때 사람에게 따라서 악한 마음
이 더 강하나 선한 마음이 더 강하나는
차이가 있겠지만요. 그래서 여러분은
똑같은 좋은 시대에서 살면서 즐겁게 사
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괴롭게 사는 사
람이 있습니다. 같은 시대에 사는 데도
악행만을 일삼는 사람이 있고 선양을 하
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똑같은 영양제를
먹어도 만약에 죽 있는 죽이가 먹는다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죽이 될 것이며, 약
초가 먹는다면 그건 더불어 약초가 되어
서 많은 생명들을 살립니다. 칼도 칼 나
를입니다. 똑같은 칼이라 해도 의사는 칼
을 들어서 사람을 살리지만 강도는 칼을
들어서 사람을 죽입니다.

알고 본다면 한마디도 한 게 없고 한
마디도 한 게 없는가 하면 한 생각 한
것이 없고 행동 하나 한 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터득해야 합니다. 실
생활에서 도가 있는 것이 사실생활 비종
교도 따르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처음 참나를 발견했을 때 안에서 나오는
대로 행을 한다면 그건 정신세계에 도달
하는 것이며 처음 공부할 때 참자기를
믿고 중심을 세우지 않고 물질세계에 혼
들려서 산다면 그것은 물질세계에 도달
하게 되는 겁니다. <반야심경>에 보면
“자아에 버리어 버려야 버려야 버려야
지 안도를 버리어야 우리가 자유
로워진다는 뜻이죠. 고해의 감을 건너가
자는 말입니다. 끝없는 밝음이 있기 때문
에 합합하다는 언어도 붙지 않는 지리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이 물질세계에 도달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첫째는, 만약에 거위, 지렁
이들이 그냥 날비하게 있다 한다면 여러
분은 의식적으로 벌써 정그림이라고 생각
하고 귀신들이 있다면 무섭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내 마음이 채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모두 정그림처럼 보이고 무
섭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사내가 걸어져
서 완전히 돌아간다면 몸은 없어지고 영혼
이러면 거울 거울 건너가는 거죠. 살아있는
때 의식이 그대로 남는 겁니다.

둘째는, 기독교·가톨릭교에서는 요단
강 건너가 만나라 했고 우리는 강을 건너
고 저 언덕을 넘어서 같이 한자리를
하고 저 언덕입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세
계의 의식이 꼭 차 있기 때문에 이 도리
를 모르면 자기가 죽어서도 몰이 기다리
니 아무리 기다려도 할지라도 배가 옵니까?
의식적으로 강에 들어가면 물이 깊어서
 빠져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배
가 오지 않으니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생각 끄어버린 참나에 걸
것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지금 과학적으로 본다면 블랙
홀이라 말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불바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불바라가 세번까
고 단계를 통과합니다. 그 통로를 넘지 못하
는 것입니다. 거기를 넘어갈 때 타 죽을
까봐 못 들어가고 뜨겁다고 못 들어갑니다.
다 물질세계의 의식이 꼭 차 있기 때문
에 죽어서도 몰이 있는 줄 알고 못 들어
갑니다. 나 아닌 나는 없습니다. 뜨거워
서 죽을 필요도 없고 간다 온다 할 필요
도 없고 어디 들어간다고 하여도 들어간
사이가 없고 나온다 하여도 나오는 사
이가 없어서 그대로 돌리고 그대로 여여하
건만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걸리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길을 못 가
고, 또 내 몸 속에 있는 그 의식들이 전

부 모습을 그와 같이 해 가지고 보이는
것이 다른 곳에서 보이는 게 아닙니다.
몸중이가 사대로 흩어지니 내 몸 속의
그 의식들이 앞을 가리고 그림자처럼 따
라다니는 것이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닌데
하고 한 생각을 남기면 그냥 보살로 화
할텐데 그 한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넘
지 못하는 겁니다. 자차 말하지만 빠져
죽을까봐 배를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타
죽을까봐 불바라 속을 못 들어간다 말입
니다.

우리의 이 마음을 빼놓고는 부처를 이
를 수가 없고 내 마음 빼놓고는 도저히
알못 풀린 공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본
래는 열려 있는데 자기 소견으로 닫아
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나는 나고 너는 너고, 미운 걸 보
면 보기 싫어하고 또 부부지간도 그렇고
자식지간도 그렇고 일일이 잘못하는 걸
보면 탓을 합니다. 속이야 어떻든지 누가
좋은 말을 해주면 좋다고 하고 진실로
너는 이렇고 이렇다고 지적을 해주면 그
게 듣기 싫어서 왕각 화를 내며 너 두고
보라고 한다면 이러한 마음이 결국 자기
를 깎아 먹게 되요. 이 세상은 내가 없
으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있기에 일어나는
것이니 모두 내 탓으로 돌리고 그러는
반면에 바로 내가 공에서 있다는 그 뜻
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합니다.

본래 자성불은 누구에게나 있는데도
자기 불성은 믿지 않고, 모든 것이 그 능
력으로 나고 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법
담에 계산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 나 좀
잘되게 해 주십시오 한다면 그런 기록이
지 공력이 될 수 없습니다. 공력이라는
것은 한마음으로 돌아가야 공력이 됩니
다. 내가 아님이 없기에 내가 하지 않는
일이 없고 내 아님이 아닌 것이 없고 내
몸 아닌 것이 없는데 어찌 그게 공력이
안 되겠습니까?

일체제불과 일체보살, 역대 조사, 수많은
중생들 어느 것 하나 버리지 않고 전
부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래서 그
한마음마저 없다는 사실을 한마음이 고
정되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께
서는 한마음 내실 때에 보살로서 화에서
중생들이 원하는 대로 응해 주시며, 만약
에 백정노릇을 했다 할지라도 부처님께
귀의해서 마음 가운데 항상 넣고 끊어지
지 않는 그 마음, 일을 할 적에나 동을
놀 적에나 잘 때나 일어할 때나 앉을 때
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와 이 세상에
모두 살고 있는 자제가 끝만대장경의 증
거입니다. 그때 시절에는 그때 시절대로
의 용어가 달랐고, 지금 시대에는 현실에
맞는 용어로 바뀌어야 해요. 뜻도 같고 사
는 도리도 같습니다만 시대가 지구 번
하여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
도 배우는 사람도 옛날에 부처님께서 말
씀하신 용어를 가지고 인용한다면 요즘
사람들은 그걸 알아 듣지 못합니다. 아무
런 귀한 보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해
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그러니 이 마음 자체가 부처님의 뜻을
저버려서 아니라 진짜로 부처님의 뜻,
공수를 알아서 한마음으로 내 마음 속에
지닌다면 구하여 영주를 목에 걸고 다니
지 않아도 되겠지요. 백팔염주를 걸고 다니
는데 백팔염주가 바로 표현입니다. 백팔
번뇌 망상이라고 했습니다만 그 번뇌 망
상이 아니라면 어찌 공부하셨습니까?



그림·최주현

백팔이라는 건 뭐냐하면 백은 무(無)입
니다. 무! 팔은 사무, 사유가 한데 합쳐
져서 무의 세계 유의 세계가 같이 돌아
간다는 뜻입니다. 같이 돌아가면서 생각
생각에 고려가 고려를 들고 돌아가는 그
것을 망상이라고 합니다. 번뇌망상이라고
하지요. 그 일어나는 마음이 부처를 이룰
수 있고 법신을 이룰 수 있는 수련과정
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나
를 수련시키는 책이라고 해야 합니다.
어떠한 것이 나온다 해도 허허 웃고 거
기서 나온 거니가 거기서 해결하라 하고
말고 놓으면 되지 그달릴 필요가 뭐 있
겠습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놓지 않으면 얻을 바 없어요”
“기초 튼튼하지 못하면 집 금가고 무너집니다”

대를 통해서 어떤 경계가 따쳐와도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내 마음이 이상전심으로
돌아가서 사대를 통해서 나를 치니
참 감사하구나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말
한다면 남 탓할 것도 없고, 남을 증오할
것도 없고, 배신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
도 없으니 얼굴에 웃음을 머금으면서 환
희심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것 버리고 저
것 버리면 뭐 남는게 있어서 정복하셨습
니까? 더럽다고 버리고 버리고 버리고
또 즐거운 것만 돌린다면 하나도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도 남김
없이 다 귀찮아서 놓고 보니까 나중에
하나도 버릴 게 없어서 다 나 아님이 없
더라 할 때까지 우리가 공부해야 합니다.

로을, 병고 또는 가난, 영계성, 유
괴 전성, 새군성 등 모든 재료를 언
땀만 알지 말고 공부할 수 있
는 재료로 삼아서 모든 걸 거기 놓고 하
나 하나 실험을 해서 체험을 해 보세요.
직접 체험을 해 보고 그 맛을 알면 흥연
히 참자기가 받아들입니다. 알고보면
지면 알아지고 보는 대로 생각하면 그냥
제도가 되는 것이고, 부모의 조상이 따르
고 있거나 또는 부처님의 조상이 따르
고 있거나 모두가 한 뿌리이며, 알고보면 부
처님께서 해골바가지에 큰 짐을 하신 이
유도 하나로 돌아가는 이치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고, 은회
해서 돌아가는데 모두가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이 없는 도리를 가르치고 위한 것이었습
니다. 수억겁에서부터 이렇게 걸어오며
돌아가면서 구름이 되었다가 흩어지면
다른 구름과 또 모이며 반복되는 세월을
걸어왔다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
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한번 행해
본 예가 없고, 한번도 말씀해 본 예가 없
고, 한번도 생각해 본 예도 없다는 것입
니다. 왜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없이 수
없는 나날을 가르치셨습니다. 꽃을 한 송
이 들어서 가르치셨고, 또는 다지람에서
자리의 반을 내 주시어 가르치셨고, 또
관 밖에 두 발을 내놓으셔서 평발을 가
르치셨다 이렇습니다. 그 평발의 도리가
어떠한 것입니까? 발이 납작해서요? 발

이 풍뎉하게 경지 같아서 광발이라고 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구 빌레
로서 아니 우주 삼천대천세계에 모두가
닫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진도가 발 하
나도 이 땅에 닫지 않는 게 없어요. 풀
조도 하나, 지렁이 하나도 이 땅을 닫지
않음이 없으니 어느 것 하나도 빼놓지
않은 광발이다 이 소리입니다. 뜻으로
알아지지 말까만 듣고서 그대로 그럴 반
복해서 외은다면 소용없는 일이지.

이 공부는 지식이 많고, 학식이 좋고,
위대하고 부자이어야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본래 청정한 불성을 가
지고 있기에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높고 낮고 가난하고
부자가 없이 그대로 평등한 것입니다.
높고 낮고도 없고, 여자·남자도 없으며,
여차 빼놓고 남자와 여자로도 또 비구
만 재일이라고 해서 비구니를 우습게 안
다면 자기 나온 곳을 모르는 것이며 나
은 곳을 한번 더 들어갔다 나와야 알
고요. 그러기 때문에 산하대지는 어머
니의 질투와 같고 저 대양계는 아버지와
같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원기를 주고
공기를 주어서 생명을 살리고 하지 않습
니까. 그래서 그 네 가지들 우리들은 감
사함을 느낄 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안됩
니다. 물론 사람이 없어도 안될 것이며,
풀이 없어도 안되고, 물이 없어도 안되
고, 흙이 없어도 안되고, 바람이 없어도

어떠한 것이
나온다 해도
'거기서 나온거니
거기서 해결하라'
믿고 놓으면
끄달릴 필요
있겠습니까

안되며, 불·물·바람·흙·사람·우주
개공을 바로 이 한곳에 담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알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별에 하나라도 나
을 자격이 있으니까 나온 것이지 자격이
없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있
기 때문에 이 진리가 끝까지 없어지
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화되면서
웃을 벗어 새옷을 입고, 상대성 원리가 아
닌 것이 없는 것을 부처님이 가르친 것
은 상대성 원리를 하나로 해서 그 하나
도 없다는 사실을 알라고 가르친 겁니다.
어느 누구라도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재차 말하
지만 여러분 속에 있는 의식은 나쁘고
좋고를 모르기 때문에 두서없이 나옵니
다. 말하든지, 흥하든지, 흥겨 보이든지,
나쁘게 보이든지, 맑게 보이든지 두서없
이 나오게 하는데 나쁘고 좋고를 알고
있는 인간의 마음이 다스려야 합니다. 다
스려서 그 중생을 제도해야 하기 때문에
싱구보리 화화중생이라 했습니다. 위로는
한마음을 갖고 아래로는 이 중생들을 제
도해야 하고, 내 중생을 제도하지 못하면
천백억 화신이 화하지 못해서 열구명
통해서 나고 돌면서 중생을 제도 못하니
그런 보살이 아니라 한 겁니다.

아무리 보살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고
부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공부를 많
이 한 큰스님이라 할지라도 이런 이름일
뿐입니다.

“깨달게 해 주십시오
좀 깨달게 해 주십시오”
“깨달게 해달리요?” 풍지요, 깨달
게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모두가 스
승 아닌데 없으니 여러분 스승 찾아가
들어다닐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여러분 대신 발을 먹어 여러분
배도 뿔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다 먹으면
여러분은 굶어죽어 생겼어요. 그러나 발
을 먹다가 땅을 쳐서 여러분한테 드리
기는 하나 먹는 건 여러분이 먹어야 배
가 부를 것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여러
분의 도를 깨우쳐줍니까? 허허허, 이러면
어떻게 내 질문 할까요? “취가 고양
이를 쫓습니까? 고양이 귀를 쫓는 겁
니까?” 한마디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걸리
지 마시고 대답을 좀 해 보세요. 모두 두
인물이 되고 부처님이 다 되었군요. 사실
은 알고보면 한마디도 할 게 없지요.

세번 왔지만 처음 씬습니다
“전 이곳에 세번 왔으나 못 만나
뵈고 오늘 처음으로 뵈는군요.”

실컷 보세요, 실컷 봐도 거룩한
보시지 마세요. 이 고깃덩이는 어
무리 봐도 흩어지면 송중이니 보실려면
아주 진심으로 잘 보세요. 그래 거짓 그 대
답이예요. “취가 고양이 귀를 쫓는다, 고양
이가 귀를 쫓느냐?” 하고 물었더니 여러
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안 될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뱃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도 누가 갖
다 주는 것도 아니고 뱃어가는 것도 아
닙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기르고 부모를
모시고 좋은 분을 만나 살아나는데 부모
가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몸만 흩어졌다
뿐이지 다시 태어나 잘못해서 다른 모
습으로 태어나게끔 하지 마시고, 또 여러
분은 한 생각을 할하면 위로는 목은 빛
도 감을 수 있고 아래로는 햇 빛을 즐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풍지라면 나
도 풍지입니다. 사람이 손을 댄다 오그
릴 줄 알고 오그렸다가 결 줄을 알아야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도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데 그게 한쪽
만 끊어져도 송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콧구멍은 내려 돌리고,
소 콧구멍은 치켜 들려서서 바람·비·
흙·먼지가 전부 날려서 꼭 막혀 버렸대
요. 사람은 비·바람으로 인해서 먼지가
끼면 그냥 막히는데가 아래로 들어
들고, 왜 그렇게 소 콧구멍은 치켜 통
고, 사람의 콧구멍은 내려 뿔렸는지
그 이치를 여러분이 잘 알아 보세요. 은
통 거기에 매달려서 붙잡고 걸리는 마
고요. 마음은 체가 없어서 걸릴 것도
없고 걸리지 않을 것도 없어요, 안될
것이요. 이 은 우주 삼천대천세계 두루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합친 주인공